

第二部 (田作物部門)

1 . 소맥파성정도의 품종간 차이

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장환, 하용웅, 남중현*

우리 나라에서 육성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육종재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품종 및 계통들에 대한 파성정도들 검정 하였는데

- 1) 파성정도 I - III의 준파성 품종은 파종을 소거 시키지 아니한 조건하에서 재배하여 지엽 전개까지 일수로 분류하였으며 파성정도 IV-VI의 추파성 품종은 저온 처리기간의 장단과 지엽 전개까지 일수를 가지고 분류하였으며
- 2) 우리나라 2개의 육성모지인 수원에서는 파성정도 IV-V의 품종이, 밀양에서는 III-IV의 보다 낮은 추파성이 육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.

2 . 파종기 이동에 따른 소맥 등숙기간의 품종간 차이

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재염, 조장환, 이 구, 명돈재*

小麥의 播種期 및 日長條件이 小麥品種의 登熟期間에 미치는 影響을 調査하였던바

- 1) 出穗期와 登熟期間 사이에는 高度의 負의 相関이 있었으며 早熟化栽培할수록 相関係가 높았고 各 品種間의 出穗期 變異幅도 컸다.